

(가칭)실버문화복지센터 개관 예정

수자원공사 노인유치원 지원사업에 파란사회서비스센터 선정
10월 개관 목표로 준비 박차, 65세 이상 대상 문화, 복지 공간 추진



노년의 놀이공간 실버유치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른신들
덕산면에 (가칭) 실버문화복지센터가 조만간 들어 설 전망이다.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연령의 자원봉사자들과 어르신들의 만남을 통해 세대가 어우러지며 활력 넘치는 노인들의 문화, 여가, 복지, 만남과 소통의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오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에 눈코뜰새 없는 김혜란센터장은 “센터는 남제천지역에 실질적인 노인복지를 실행하는 공공의 기능을

수자원공사 총주권지사가 지원하고 사회적협동조합 파란사회서비스센터(센터장 김혜란)가 위탁한 (가칭)실버문화복지센터가 덕산면 소재지에 준비되고 있다.

파란사회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에서 공모한 수몰지역 노인유치원 유치사업에 파란사회서비스센터가 응모하였고 높은 경쟁율을 뚫고 선정의 영광을 안았다고 한다.

센터는 덕산, 수산, 한수면의 6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되며 인지개선, 신체활동, 여가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신체유지를 지원하고 삶의 활력을

하는 공간”이라면서 “비록 수자원공사가 예산을 지원 하지만 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민과 관이 합심하여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지역에 지역복지 차원에서 힘을 모아 노인복지를 실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의 노령화에 비해 노인들을 위한 사회, 문화, 복지시설이 전무한 지역상황에서 관에서 추진해야 할 문화, 복지사업을 민간의 노력으로 유치해 낸 만큼 지역사회는 물론 시와 면 등 행정의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 명실상부 지역민이 함께 만드는 실버문화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한다.